

봉사의 보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랜섬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주님은 3년 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 메시아 왕국을 세워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온 인류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8

주님은 그들에게 특히 충실하면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마태복음 19:28).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왕국이 영적인 것이며, 그들이 그 왕국의 동참자가 되기 전에 "첫 부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고린도전서 15:51,52; 요한계시록 20:6). 제자들이 왕국에 참여하고 그 왕국이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도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암시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장차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12,13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히 압도되고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이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소식의 일부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용감했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심한 꾸지람을 받았다. 그는 스승을 바로잡으려 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곧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 되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21-23

이 같은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마태복음

16:21).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 추가된 말씀 역시 그들에게는 스승의 "어두운 말씀"처럼 신비롭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때 하신 말씀도 떠올렸을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53). 이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를 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오순절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은 상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깨달았다(사도행전 2:1-4). 거기서 성령께서 신비로운() 신적 섭리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몸인 교회의 고난이 먼저 이루어져야 왕국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1:11

오른쪽과 왼쪽에

또 다른 복음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와서 간청했다고 전한다: "주님, 제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0:20,21). 그들은 왕국의 영광을 나누어 줄 때가 매우 가까웠다고 믿었다. 이 두 사랑하는 제자들이 단순히 야망 때문에 스승께 가장 가까운 자리를 구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그분께 가까이 있는 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열두 제자 대다수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은 여러 특별한 경우에 베드로와 함께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성산에 있었고, 야이로의 딸이 깨어날 때도 있었으며, 겿세마네 동산에도 있었습니다(마태복음 17:1-5; 누가복음 8:41,42,49-56; 마가복음 14:32-34). 그들은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분은 자신의 왕국에 중요한 자리가 있을 것이나, 그 자리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0:23)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인 정의와 의의 대표자로 서 계십니다. 천년왕국의 천상 단계에서 차지할 위치는 어떤 형태로든 단순한 편애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자격에 근거하여 주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을 것입니다(에베소서 2:8). 주 예수님 자신은 합당하시기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하심이라." (요한계시록 5:12).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께 영광과 큰 존귀를 주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왕국 영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고 모든 "부름 받고 택함 받고 신실한 자들"이 약속된 "생명 면류관"을 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4; 2:10

어떤 왕국을 의미하는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와 사도들이 자주 언급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처음에는 물론 예수 시대 이후

거의 200년 동안은 혼란이 없었다. 초기 교회는 메시아가 두 번째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한 신성한 권능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이 메시아 왕국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천년이 필요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2,3; 마태복음 25:31; 요한계시록 20:6

그러나 점차 지상의 교회가 메시아의 왕국으로 조직되어 예수 재림 전에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은 교회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더 이상 복음 전파는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준비된, 듣는 귀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작은 무리"를 부르며 온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누가복음 12:32). 오히려 그 방향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후의 노력은 세속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되었다. 음모가 시작되었고, 거짓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왕들과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박해가 동원되었고, 교회의 세계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속 통치자들을 회유하고 위협했다.

한동안 이러한 노력은 번성했으나, 19세기 초부터 지상에 대한 교회의 지배라는 사상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거의 없다. 혼란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영적 왕국이 단지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세계의 거대 정부들에 의해 대표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특정 부분이 왜 같은 왕국의 다른 부분과 전쟁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군대를 구축했는지 생각할 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 모든 혼란의 결과로,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일관되거나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야고보, 요한 및 다른 사도들이 통치하는 왕국이 없이는 "열두 보좌"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9:28). 그들은 또한 주님의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알고 이해하려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39; 사도행전 17:11).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아직 땅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3

“너희가 능하겠느냐”

두 사랑하는 제자와 그들의 어머니가 왕국에서 스승 곁에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어떤 위치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배우고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왕국의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주님은 이 조건을 선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마태복음 20:22). 그분은 무슨 뜻이었을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잔"이 다른 곳에서 언급하신 바로 그 잔이라고 답한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한복음 18:11). 신성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복을 위해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맡길 자는 누구나 먼저 그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신실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셨다. 예수님 자신의 경우 그 잔은 섬김과 모욕, 수치, 희생, 고통의 모든 경험을 의미했으며, 그는 지상 사역 3년 반 동안 이를 충실히 견뎌내셨고,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완전히 성취하셨다(요한복음 19:30).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분과 유사한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통과 희생과 섬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먼저 보여줄 때에만, 주님의 왕국 영광과 존귀와 권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로마서 8:17; 디모데후서 2:11,12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희생적인 죽음으로의 세례를 가리키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누가복음 12:50)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는 그분의 진정한 세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 속으로 내려가시고, 물 속에 묻히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희생적인 죽음 속으로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죽음 속으로의 진정한 세례는 요단강에서 갈보리까지 3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이는 죽음으로의 세례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셨다. 그는 그 죽음의 세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아버지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으켜져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이 위치를 영원히 차지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19-22; 골로새서 3:1; 히브리서 1:1-3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였다. 이는 모든 세상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함을 의미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따를 것인지 물으셨다. 곧 그의 섬김과 희생과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죽음으로의 세례를 함께 받을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로마서 6:3-5). 오직 그분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만 그들은 하늘나라에 참여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의 잔을 마실 것인지, 죽음으로의 세례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하고 자기희생적인 자들만이 그러한 경험에 들어갈 수 있거나 기꺼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왕국 관점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이 지상의 다양한 왕국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지상의 지도자들이 통치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희생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리는 지상의 기관들에 가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는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부정이 필요한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가? 그들이 모두 그의 고난을 나누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만이 이 다양한 진술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우리는 그것이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값진 진주"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13:46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승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세례에 참여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마태복음 20:22).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기꺼이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한 제자들처럼 "이기는 자보다 더 큰 이기는 자"가 되어 구속주와 함께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약속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누릴 모든 이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로마서 8:37; 2:7; 고린도전서 12:27

이 기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0:23).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의지뿐이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니신 능력과 힘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다. 그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들과는 분리되셨다"(히브리서 7:26).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를 바칠 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난과 경험의 학교로 인도하셔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신실함을 죽음까지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교훈을 주실 것이다. 타락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히브리서 2:17).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종

다른 사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그런 청을 한 것에 분개하였다(마태복음 20:24).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 메시아 왕국에서 위대함을 이루는 기준이 되어야 할 지침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다. 누구든지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더 높은 자리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1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통상적인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통치권이 타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25,26

왕국의 통치 원칙은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종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위치는 신성한 임명으로 왕국에서 가장 높으며, 다른 이들은 그분의 사랑과 섬김, 순종, 충성의 정신을 가진 만큼 그분

곁에 나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종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2:26